

서호인의 '소설처럼'



좋은 부모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너머

-세오 마이코,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고 혐오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꽤나 단정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가정 내 학대로 습지는 아이들 뉴스는 매번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만 또 늘 그렇듯이 그 다음 뉴스로 덮이고 만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하고 분노하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제도적 접근은 미미하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동네 골목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사는 집에서 여러 종류의 폭력에 노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웠던 시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고통은 아마도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비단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학대의 전부는 아니다. 불과 수년 전, 모두가 카페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시절에도 아이들과 아이의 보호자는 그곳이 '노 키즈 존'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해야 했다. 술한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의 아이다운 행동은 마땅히 통제받아야 할 것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통제와 억압과 비난의 대상은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되기 십상이다.

평균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반복되는 선행학습과 과목이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사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아이다운 놀이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는 걱정한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출생률이 문제라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큰일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 애를 안 낳는다고.

세오 마이코의 장편소설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린 소설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러한 학대를 멈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환기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어른의 사정에 의해 가족 형태를 수차례 바꿔야 했던 아이 유코를 주인공으로 한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일본 서점 대상 수상작답게 편안한 가독성으로 쉽게 읽히는 이야기임은 물론이다.

유코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유코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몇 년 되지 않아 브라질로 떠나야 할 상황에서 유코는 새엄마와 일본에 남을지, 아빠와 브라질로 떠날지 결정해야 한다. 유코는 의외로 집에 남기를 택한다. 그리고 새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한다.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하지 못한 가정의 구성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엄마인 리카는 유코에게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을 찾아 결혼과 이혼 또다시 결혼을 거듭한다. 유코의 성은 자꾸만 바뀌게 된다.

지금의 아버지 모리미야의 딸인 유코의 시선에서 소설은 진행되지만, 이야기 내내 제법 복잡한 가정사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종 불안한 마음을 거두기 힘들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코가 겪은 부모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아이가 생겨 자기 인생이 새롭게 시작함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며, 유코 또한 새롭게 맞이한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적응하려 애쓴다.

다. 서로의 선의가 맞아떨어져 유코는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비범한 가정사에서 비롯된 비극적 성장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평범하게 자라나 평범한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결혼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함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이 평범한 특별함을 위해 소설이 강조한 것은 개인의 선함이다. 어린이에게 버거운 판단을 맡긴 친아버지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아버지에게 이르러까지 인물들은 대체로 선하고 유코의 존재를 존중할 줄 안다. 일본 특유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일까. 소설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폐가 되는 일 없이, 흘러간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을 보여 주면서.

좋은 부모이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하고 귀하다. 이 소설은 최대한 담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마음을 내내 펼쳐 놓는다. 그대 어딘가 구겨진 곳 없는 그 마음에서 일견 위안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이 전부 아니다. 아이의 보호와 성장을 보호자의 성품과 환경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전부 맡겨서는 곤란하다.

우리 곁의 아이들이 모두 유코처럼 자랄 수 있을까? 좋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건 지금 우리에게 일종의 판타지가 아닐까? 제목에서의 '바통'은 유코를 뜻하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음일 것이다. 마음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우리 사회에게 주어진 질문 혹은 바통이 아닐 수 없다.

의료칼럼

환절기와 중이염



김혜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과장

쓰는 것이 좋다. 또한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순청 청력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력 검사를 시행한다.

귀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중요한 구조물은 귀구멍 안에 감춰져 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이염 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증상별로는 고막 안쪽 점막의 염증 때문에 고막이 붉게 보이고 통증과 열을 수반한 '급성 중이염', 중이 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액체가 채워져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처럼 딱딱하게 들리는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나고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며 청력이 떨어지는 '만성 중이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급성 중이염은 증상과 눈으로 고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해 초기 진단이 용이하고 어린이들에게서 흔히 생긴다. 항생제에 반응이 좋고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급성 중이염이 있는 동안에는 고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에 채워진 염증액을 없애는 것이 치료이므로 약 한 달간의 투약으로 말려 본다. 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주사기로 물을 빼내거나, 고막 파취를 하고 고막을 찢거나 활기관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튜브를 고막에 박아 넣어 공기가 튜브를 통해 중이 점막에 직접 닿도록 하여 점막을 말리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중이염이 더 진행되고 오래 지속된 경우는 아무래도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단계를 지나 누런 고름

이 나오는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냄새도 나고 가렵기도 하고 잘 안 들리고, 혹은 이명이 심하게 느껴진다.

가장 전형된 형태의 중이염은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일종의 종양성 질환이고 뼈를 녹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심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안면 마비, 어지럼, 심한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의료, 위생 및 경제 관념이 좋아지면서 대표적 후진국형 염증성 질환인 만성 중이염의 빈도가 감소하고 따라서 합병증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보통 급성 중이염으로 시작해 만성 중이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이염 증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귀에 통증이 있거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청각 장애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중이염을 예방할 수도 있다. 흡연은 귀의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키며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 또 수영과 목욕 후에는 바깥귀를 깨끗이 씻고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귀 건조 시 면봉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귀의 통로와 고막이 손상돼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피해 감염 원인이 되는 염증이나 점액의 축적을 억제하고, 평소 손을 잘 씻으며 독감 등의 예방 접종을 빠짐없이 맞아 야 한다.

새로운 60년을 맞이한 금호타이어의 '기업 책무'

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불쑥부르크 지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간절히 소망해본다. '광주'에 기반을 둔 금호타이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며,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는 물론 국내외 완성차 업계의 휴무(공장 셧다운)로 인해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및 교체용(RE) 타이어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세계는 당연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대비를 하고 있다.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금호타이어도 창립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불어 최근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역시 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명절에는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가 대내외 경영상 어려움에 공감하여 '임금 동결'에 뜻을 모은데 이어, '3년 연속 무쟁의'로 2020년 단체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올해는 노사가 더욱 합심하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매출 회복 및 경영상 이익 흑자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광주공장 이전을 통해 친환경 공장 건설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금호타이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찐 고객' 지역민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노사 상생으로 고객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 본다.

社說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끝내 물 건너가나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어렵게 됐다.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극 나섰지만,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밀려 그동안 업무로 맡아 온 기획단 운영도 중단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숙원 사업 해결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경계 조정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업무를 맡아 온 기획단 운영도 중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기획단은 공론화를 거쳐 북구 문화동·광항동·두암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중폭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음 민선 8기에서는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광주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경계 조정은 2년여 만에 또다시 흐지부지될 판이어서, 그동안 진행된 논의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이시장이 재선에 불을 붙인 직후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계 조정은 갈수록 커지는 자치구 간 인구 편차와 이로 인한 행정·복지 서비스 격차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정 수준의 인구 배분을 통해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한데 이번에도 일부 지역 구상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광주의 밤을 밝힌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가 올해 그 이름에 걸맞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부한 인프라와 최첨단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광주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 예술과 디지털 기술 결합의 기지가 될 AMT센터(Art & Media Technology)가 올해 말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들어설 예정이다. AMT센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예술과 기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교류하는 국제·실용적 창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4차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 전시, 세계기록유산인 5·18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하는 '딥 스페이스' 등 독보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

올해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7주년이 되는 해다. 시는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홀로그램 극장 오픈, 유네스코 창의벨트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예술'에만 치우친 나머지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유네스코'라는 로고가 지닌 고부가가치를 잘 살려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 제시한 비전은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도시로 거듭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의 대표 브랜드들과 연계한 경우 문화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인 법이니 이번 장밋빛 로드맵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때 흥영영화극장가를 주름잡던 시대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애정하는' 배운 한 명쯤 마음에 품고 있던 때다. '사대현황'으로 불렸던 광부성·여명·유덕화·장학우를 비롯해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떠나 버린 장국영, 그리고 우수 어린 눈빛으로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던 양조위가 대표적이다. 장만옥과 왕조현·임정하·왕정문을 좋아하는 남성 팬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영웅본색'의 주윤발 역시 한국인이 사랑한 최고의 흥공 스타다. 그는 2018년 다른 배우들과는 조금 '다른' 뉴스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810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거 거저회견을 한 것이다. 평소 바스를 이용하며, 휴대전화기를 17년 동안이나 사용했고, 한 달 용돈으로 12만 원을 쓴다는 주윤발은 당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였던 '인도의 성자' 비노바 바베는 13년간 8000km를 걸으며 인도 전역의 부자들을 찾아다녔다. 귀족 계층이었던 그가 마음을 다해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당신이 가진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처음엔 반응이 냉담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자들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는 무려 8만ha.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만 한 넓은 땅이었다.

최근 기업인들의 통 큰 기부가 화제가 됐는데, 먼저 기부수 카카오 의장이 전 재산의 절반인 약 5조 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며칠 뒤에는 안도 출신으로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부부가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공식 가입, 눈길을 끌었다. '더 기빙 플레지' 받았다. 810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거 거저회견을 한 것이다. 평소 바스를 이용하며, 휴대전화기를 17년 동안이나 사용했고, 한 달 용돈으로 12만 원을 쓴다는 주윤발은 당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들 새대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부에 나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조강조 금호타이어 상무·생산기술본부장

독일 니더작센 주에는 폭스바겐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다. 인구는 12만여 명, 면적은 광주시의 절반에 불과한 이 도시는 1936년 폭스바겐 공장이 들어서면서 처음 생겼다. 현재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에는 지역민 5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에는 독일어로 '자동차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세계적 관광 명소 '아우토슈타트'가 있다. 폭스바겐이 투자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자동차 테마파크처럼 조성한 곳으로,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오며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자리잡고 있는 한 기업이, 자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리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